SK그룹, AI 중심 사업확장… '투자여력·수익성 관리' 과제

HBM 생산설비 대규모 자금 투입
반도체 후공정 사업 확대 검토
글로벌 AI 투자 위축시 부담 작용



지난 21일 울산에서 촬영한 SK에어코어(SK aircore) 건물 외관. /구남영 기자

SK그룹이 인공지능(AI) 반도체 생산부터 데이터센터 구축까지 사업을 확대하면서 글로벌 AI 투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반도체와 인프라 사업을 연계해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지만, 빅테크의 설비투자가 둔화할 경우 반도체 수요와 데이터센터 수익성이 동시에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SK그룹은 SK하이닉스의 고대역폭메모리(HBM) 생산 확대와 SK텔레콤의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추진하는 가운데 SK에코플랜트도 반도체 후공정 사업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반도체 증설에 후공정까지…AI 사업 영역 전 계열사 확대

SK그룹의 AI 투자 확대를 주도하는 SK하이닉스는 HBM 생산능력 확충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청주 M15X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증설을 추진하면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설비투자액은 31조2160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투자액(30조1730억원)을 넘어섰다. 올해 전체 투자액도 40조원대 후반에 이를 전망이다.

AI 사업 확대는 그룹 계열사 전반으로 이어지고 있다. 건설·환경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SK에코플랜트는 지난 5월 SK하이닉스에서 패키징 사업을 담당했던 홍상후 부사장을 영입하고 메모리 모듈 조립과 후공정 사업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자회사 에센코어의 메모리 모듈 및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사업과 연계해 반도체 사업 기반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데이터센터 구축에도 주요 계열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아마존웹서비스(AWS)와 공동으로 울산 미포국가산업단지에 100메가와트(MW) 규모의 AI 데이터센터를 건설 중이다. 2027년 4분기 첫 가동을 목표로 SK에코플랜트가 설계·시공을, SK가스와 SK멀티유틸리티가 연료 및 전력 공급을 각각 담당한다.

울산 사업에는 정부 지원도 더해질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1일 건설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AI 데이터센터와 메모리반도체 수요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면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건설 전문 인력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SK텔레콤은 울산을 시작으로 전국 데이터센터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2029년부터 5기가와트(GW) 규모의 시설을 단계적으로 가동하고 시장 수요와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2035년까지 최대 15GW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AI 투자 위축땐 반도체·인프라 동반 부담

SK그룹의 사업 확장은 글로벌 빅테크의 AI 투자 둔화가 변수다. 주요 고객사들이 AI 서버 투자를 축소하면 엔비디아를 통해 SK하이닉스의 HBM 수요가 줄어들고 SK텔레콤의 데이터센터 고객 확보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SK하이닉스는 장기공급계약으로 일정 수준의 수요를 확보하고 있지만 신규 발주가 감소하면 증설에 따른 투자비 회수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데이터센터는 고객 확보 여부에 따라 수익성이 달라진다. SK텔레콤이 검토 중인 15GW는 울산에서 건설 중인 100MW의 150배 규모로, 시설 확장에 앞서 장기 고객 계약과 전력망, 투자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 특히 초기 건설비뿐 아니라 가동 이후에도 전력·냉각 비용 등이 발생해 가동률이 낮아지면 투자비 회수가 지연될 수 있다.

이에 SK텔레콤은 고객 수요를 확보한 뒤 시설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투자 위험을 줄일 방침이다. 지난 3분기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신설 법인 SK하이퍼가 글로벌 사업자 3곳에서 4곳과 사업 조건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2027년 상반기까지 초기 고객을 확보하고 2029년 하반기부터 신규 데이터센터를 단계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다.

투자 재원은 외부 자본 유치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을 활용하되, 사업별 투자 규모와 집행 시기를 조절해 재무 건전성을 관리할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SK그룹이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사업을 동시에 확대하면서 계열사별 투자 여력과 수익성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특히 데이터센터는 수익을 회수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장기 고객 계약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그룹 전체 투자 효율성을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삼성, 차세대 갤럭시 '엑시노스' 확대 가능성

자체 AP 기반 원가부담 완화 기대
성능·공급능력 등 탑재 비중 변수



삼성전자 엑시노스 심벌.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차세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 '엑시노스2700'의 탑재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스마트폰 부품 가격 상승으로 제조원가 부담이 커지면서 자체 AP 경쟁력 확보의 중요성도 커지는 모습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IT 기기 성능 측정 플랫폼 '긱벤치'에 삼성전자의 차세대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S27 프로로 추정되는 모델(SM-S957B)이 등장했다. 해당 모델의 프로세서 식별명은 엑시노스2700으로 알려진 'S5E9975'로 확인됐다. 성능 측정 결과 싱글코어 3061점과 멀티코어 1만967점을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내년 초 출시 예정인 갤럭시S27 시리즈에 프로 모델을 추가해 라인업을 4종으로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과 유럽 등에 출시되는 기본형·플러스·프로 모델에는 엑시노스2700을 탑재하고 북미와 중국 등 일부 시장에는 퀄컴 스냅드래곤을 적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최상위 모델인 울트라의 AP 구성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엑시노스2700은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2세대 2나노 공정(SF2P)을 적용한 제품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월 전공정 양산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생산 물량도 전작 대비 10% 이상 확대된 것으로 파악된다. 삼성전자는 지난 10월 29일 3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차세대 모바일 AP의 AI·게이밍 성능을 개선하고 양산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패키징 방식에도 변화가 있다. 엑시노스2700에는 AP와 D램을 수평으로 배치해 발열 제어와 전력 효율 개선에 유리한 사이드바이사이드(SbS) 방식이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기도 3분기 보고서를 통해 프리미엄 AP용 SbS 기판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자체 AP 탑재 확대는 삼성전자 모바일 사업의 원가 부담 완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삼성전자의 3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9월 모바일 AP 솔루션 매입액은 10조7929억원으로 DX부문 전체 원재료 매입액의 17.3%를 차지했다.

업계 관계자는 "메모리 등 주요 부품 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자체 AP 활용도를 높이는 것은 원가 관리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며 "엑시노스의 안정적인 성능과 공급 능력 확보 여부가 향후 탑재 비중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SK하이닉스, 소부장 협력사 R&D 지원 확대

5년간 1000억 규모 '도전보상제' 운영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협력사의 연구개발(R&D) 지원을 확대한다. 기술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실패 위험을 분담해 협력사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공급망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24일 SK하이닉스 뉴스룸에 따르면 회사는 올해부터 5년간 1000억원 규모의 'R&D 도전보상제'를 운영한다. 지난 9월 열린 '2026 파트너스데이'에서 협력사에 처음 소개한 제도로 기술개발에 실패하거나 구매로 이어지지 않은 과제에도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지원 대상은 국내외 중소·중견기업으로 SK하이닉스의 기술 로드맵에 기반한 전략과제를 우선 선정한다. 협약 체결과 동시에 초기 개발 자금의 최대 50%를 지원하고 개발에 성공한 과제에는 남은 개발비를 전액 지급한다.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거나 구매로 이어지지 않은 과제도 기술적 성과와 기여도에 따라 차등 보상한다. 오는 2027년부터는 협력사가 직접 기술을 제안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방식도 도입할 예정이다.

기존 협력사 기술개발 지원 프로그램인 '기술혁신기업'도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7년 도입한 이 프로그램은 유망 소부장 기업을 선정해 최대 3년간 공동 기술개발, 개발자금 무이자 대출, 생산라인 테스트, 최소 구매 물량 보장 등을 지원한다.

협력사의 기술개발 성과를 양산으로 연결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도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오는 2027년 5월 가동을 목표로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공동 테스트 시설 '트리니티 팹'을 조성 중이다.

이와 함께 협력사 지원체계를 기술개발, 실증·양산, 자금, 인재 채용·육성 등 4개 분야로 확대하고 있다.

/차현정 기자

포스코그룹, 글로벌 '트리플 코어' 전략 본궤도

호주·美 등 3대 가스 생산거점 확보

포스코그룹이 미국 셰일가스전 인수를 마무리하며 북미 에너지 사업 기반을 확보하고 '트리플 코어(Triple Core)' 전략 실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23일(현지시간) 미국 코드에너지가 보유한 펜실베이니아주 애팔래치안 셰일가스전 지분 전량을 5억5000만달러에 인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9월 14일 본계약 체결 이후 약 2개월 만으로, 인수자금 일부는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의 대출로 조달했다.

이번 인수는 포스코그룹이 지난 7월 트리플 코어 전략을 발표한 이후 첫 해외 에너지자원 확보 사례다. 포스코그룹은 산업자원 분야에서 현대차그룹과 미국 루이지애나 제철소 건설에 착수하고 전략자원 분야에서 아르헨티나 리튬염호와 호주 리튬광산 광권을 추가 확보한 데 이어 에너지자원 분야에서도 성과를 거뒀다.

인수한 애팔래치안 셰일가스전은 미국 북동부의 핵심 셰일가스 생산지로, 총 1305개의 생산정을 보유하고 있다. 연간 생산량은 액화천연가스(LNG) 환산 기준 약 100만t이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미얀마 가스전과 호주 세넥스에너지에 이어 미국까지 3대 글로벌 가스 생산거점을 확보했다. 생산·시추·인허가는 현지 운영사가 담당하고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지분에 해당하는 가스를 배분받아 직접 판매한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인수 가스전 운영과 생산정 추가 개발을 통해 오는 2040년까지 연평균 약 100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대하고 있다.

/유혜온 기자 dhaledhale@

비자레알 한국GM 사장, 보령공장 현장 점검

품질·안전경영 강화 행보


헥터 비자레알 한국GM 사장이 23일 충남 보령공장을 방문해 임직원들과 공장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헥터 비자레알 한국GM 사장이 충남 보령공장을 찾아 생산 현장을 점검하고 임직원 격려에 나섰다. 글로벌 생산 거점으로서 보령공장의 제조 경쟁력을 확인하고 현장 중심의 품질·안전 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행보다.

한국GM은 비자레알 사장이 23일 보령공장을 방문해 생산라인을 둘러보고 임직원들과 만나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비자레알 사장은 "보령공장의 경쟁력은 현장을 지키는 임직원들의 노력과 전문성에서 비롯된다"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안전하고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강화해 글로벌 시장에서 GM 차량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